

학생 자기설계 국내·외 모험 공모 '눈길'

전북대, 여름방학 학생들 평소 품고 있던 다양한 아이디어·계획 실행에 옮기도록 지원

개인2·단체 10개 팀 선정

1인당 최대 200만원 장학금 지급

"행복 지수가 높은 태국 국민들의 요인들을 현지에서 조사해 전북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할 거예요."

전북대가 최근 실시한 '학생 자기설계 국내·외 모험활동 공모전'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계획들의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 공모전은 전북대가 여름방학 중 학생들의 모험 프로젝트를 독려하기 위해 평소 품고 있었던 다양한 모험활동 아이디어와 계획을 받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에 전북대는 지난 2일 개인 2개 팀과 단체 10개 팀 등 12개 팀을 선정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총장상과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활동지원 장학금을 수여했다.

14일 동안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등반을 통해 모험심과 극기의식을 키우겠다는 강석우 학생에서부터 유럽 4개국 지역 축제 탐방을 통해 타문화와의 융합 등을 모색하겠다는 박여진 학생, 필리핀 코피노 현지 조사를 통해 최초의 코피노 기록물을 제작하겠다는 권예리 학생 등 다양하고 참신한 계획들이 제출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12팀 학생들은 대학의 지원 속에 저마다의 일정과 계획대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며, 이후 활동 결과들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모험활동 확산을 위한 모험 토크콘서트 등에서도 발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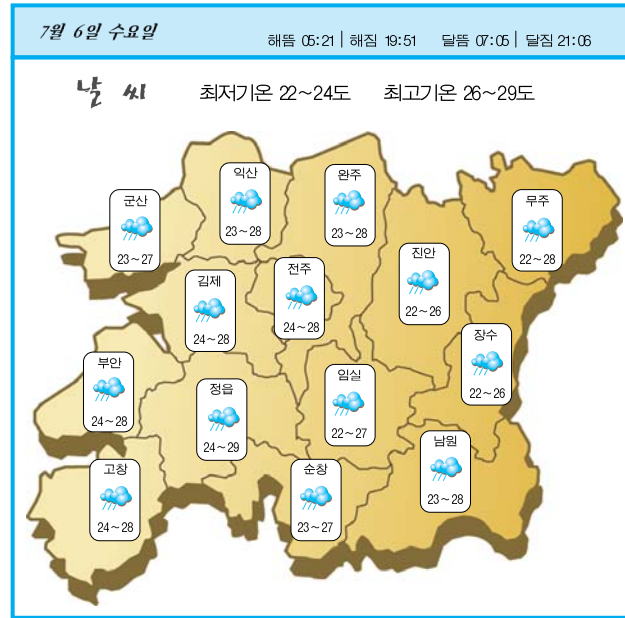


전북대가 여름방학 중 학생들의 모험 프로젝트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일 개인 2개 팀과 단체 10개 팀 등 12개 팀을 선정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총장상과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활동지원 장학금을 수여했다.

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며, 이후 활동 결과들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모험활동 확산을 위한 모험 토크콘서트 등에서도 발표하게 된다.

아남호 총장은 "스펙에 매몰된 인재보다는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체득하는 모험안에 양성을 위해 이번 공모전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

들이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이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완주 고산고 대안계열 특성화고 지정

내년 3월 1일부터 3학년 45명 보통과 도내 학생 모집

완주 고산고가 대안계열 특성화고로 지정 고시했다.

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완주 고산고가 내년 3월 1일부터 인문교육과 특성화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계열 특성화고로 지정 고시되고 3학년 45명을 보통과로 도내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전교생이 95명인 완주 고산고는 지난해 학과 개편으로 정보처리과를 폐파하고 보통과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공공체와 학교구성원의 공감대 속에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지난 3월 대안계열 특성화고 지정 신청을 해왔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과정 운영계획 △학생진로지도계획 등을 심사해 지난달 28일 특성화고 지정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완주 고산고를 대안계열 특성화고로 지정해 4월 6

시했다.

이에 따라 완주 고산고는 내년 3월부터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교육 다양성 전형 대상자 등을 선발해 인문계 교육과정과 다양한 진로 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특성화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과정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는 한편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프로젝트 학습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다양성에 대한 수요와 완주 고산고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감안할 때 대안계열 특성화고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문교육과 특성화교육과정으로 성공적인 학교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주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로 건강 행복도시 추진

전북대병원산부인과 등 5곳 '장애인 임신부 특성화병원' 지정 등

전주시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로 모든 시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강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임신부와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취업을 앞둔 청년들과 바쁜 업무로 건강을 돌보기 어려운 직장인 등 모든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전주시보건소는 전북대 학교병원 등 산부인과 병원 5개소를 '장애인 임신부 특성화 병원'으로 지정하고 여성장애인이나 산전 진찰부터 분만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달 15일에는 전북장애인구강

치료센터, 전주시치과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치과진료 및 시술 등 치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치과진료 편의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평화보건진료소에서도 1:1 맞춤형 재활치료서비스와 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장애인들이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직업치료교실·체조교실·노래교실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재활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소아환자들이 성인 응급환자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안심하고 365일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365·24 아동진료센터도 지정·운영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는 완산구 내 예수병원에도 아동진료센터가 문을 연다.

보건소는 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전주시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 지역자원과 연계해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및 상담 △노년기 영양관리 △치매인지검사 및 치매예방교육 △운동교실 등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으로,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

또한 바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관리에 소홀한 직장인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직장인 건강혁신 프로젝트'도 신규 추진된다.

이 프로젝트는 보건소 단체 교육과 개별 전문 상담, 한방침 시술 등 6개월간의 통합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흡연율과 고위험을 주율, 비만유병율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되며,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기업체의 참여로 이뤄진다.

전주시 관계자는 "각종 건강검진사업과 건강관리사업, 치료지원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어르신, 아동·청소년, 청년, 직장인 산모 등 모든 전주시민들이 각종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전북 초·중·고 15일부터 여름방학 시작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19~22일 사이에 종업식을 갖고 방학에 들어간 후 다음달 22일 전후 개학한다.

도내에서는 상산고등학교가 14일 종업식을 실시해 가장 빠른 방학에 들어가며, 15일 19개 학교를 시작으로, 22일에 가장 많은 238개 학교가

방학에 들어간다.

전주지역에서 방학이 가장 빠른 학교는 상산고 14일, 15일에는 전주삼천초, 전주유화초등학교 종업식을 갖는다.

가장 방학 시작이 늦은 학교는 전주영성고로 29일 방학이 시작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전체 774교의 방학 일수는 평균 28.5일정도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